

봄과 함께 온 불청객, 불경기

여러분 중에 겨울 기후가 좀 온화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새봄의 소식이 별 것이 아니겠으나 우리 같은 진짜 캐나다 사람에게 봄소식은 마치 어린아이를 순산했다는 소식만큼이나 기쁜 소식입니다. 작년 가을에 정원에 남겨두었으나 아주 친절하게도 겨우내 눈으로 덮여 있던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갑자기 하루 이틀 안에 치워버려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정원 일, 집 안팎의 청소, 몇 가지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일, 물이 떨어지는 수도꼭지며 파이프를 수리하는 일 하며, 그리고 바닥을 다시 까는 일 (아, 이 일은 벽에 페인트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겠군요.) 등등을 계속해서 계획하게 됩니다. 수리 명세서가 길어지면 질수록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무는 순간입니다. 부엌과 욕실도 새로 하면 어떨까요? 아마 집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올 해에 아예 새집으로 옮기시지요. 이제까지 기다려 오셨고 그런 집으로 옮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보를 좀 얻으려면 신문을 봐야겠군요. 아이고 맏소사! 신문을 펴자 첫 머리 기사가 잠깐 잊었던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현재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찾아 온 최악의 불황의 한가운데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사라지는 직장들, 증가되는 부도율, 저조한 물품 판매, 암담한 경제 예보 등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자금을 잘못 운영하다가 문을 닫는 은행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주 탄탄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세계적 기업들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파산하기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 불황이고 이 와중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아직도 이 불황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이런 상

황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함과 경제적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가고자 노력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당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도 빠르게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불황이 시작된 것입니까? 모두가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를 원해서 너도 나도 짐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목표점에 다른 이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길 위에 있는 속도제한, 일당정지, 모든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달리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일반 대중에게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달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자산 보고서에 올라오는 늘어나는 숫자에 행복해서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함과 태만함이 현재의 상황에 대단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날카로운 경고들이 많이 있었고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들이 울렸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전적인 사태가 발생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이런 중대사태가 발생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무지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이런 와중에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들도 이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어떤 지역의 교회들은 최근 헌금에 급작스러운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우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 속을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긍정적인 기대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번 불황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일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쩌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이토록 불편해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즐겁지 않은 상황이 자신들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시기에 더 자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황이 여러분의 안방에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불황을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경제적 위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황으로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번 불황이 지나간 한참 후에도 여전히 살아갈 존재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갠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

